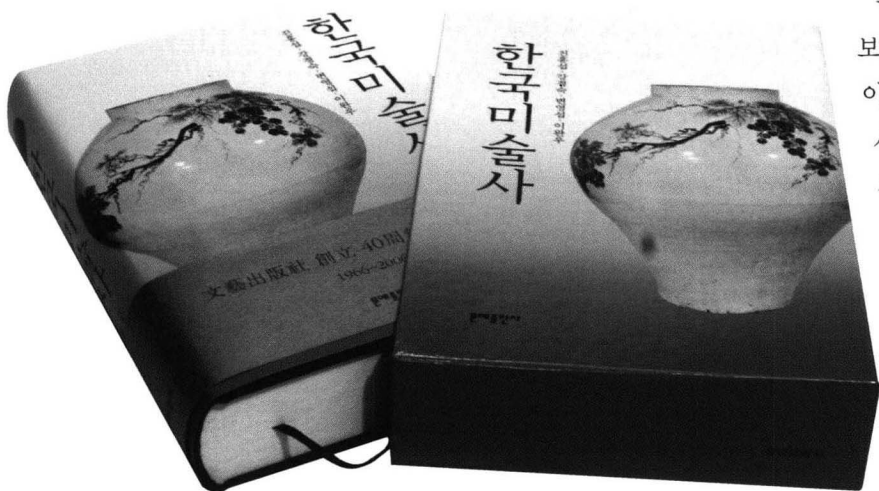


# 문예출판사 《한국미술사》 선사시대부터 광복 이전까지 한권으로 보는 한국 미술사



《한국미술사》  
진홍섭 등저 | 문예출판사 | 912쪽  
값 70,000원

독자층을 확대한 미술관련 서적 출판이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띄고 있다. 전공자를 위한 학술서가 아닌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대할 수 있는 미술해설서가 그것이다. 이러한 때 출간된 《한국미술사》는 9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 일반 독자들이 선뜻 구입해보기에는 비교적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역량에 비례해 그동안 정통 한국미술사를 집대성하는 노력이 등한시되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한국 미술분야 전반에 걸친 개설서의 출간은 반갑다.

## 정통 사관에 근거한 종합 미술사 개설서

청소년 인문교양서를 주된 출간 영역으로 삼고 있는 문예출판사는 지난 10여 년간 본격 미술 연구서를 꾸준히 펴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출간된 《한국미술사》는 집필자가 부족한 미술서적 분야에서 의미있는 결과물로 분류된다. 개설서이므로 미술사에 포함된 총 다섯 개의 분야-조각, 건축, 공예, 회화, 서예-를 함께 다뤄야한다는 부담이 있고, 한 명의 저자로는 모든 분야에 대한 자료수집과 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판사로서는 기획부터 출간까지의 모든 과정이 힘겨웠다.

“한국 미술사 연구서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출판사가 아무리 의욕을 가져도 집필자 섭외가 힘들어서 선불리 시작할 수 없는 분야지요.”

1990년대 초 기획을 시작한 전병석 사장은 5년 동안 섭외한 필자들이 원고 작성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진행을 중단했다. 회의를 거듭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꼼꼼한 준비를 했지만 여러 명의 필자들을 조율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서로 집필 방식이 다르고 시대별 관점이 달라 무산됐습니다. 그러다가 앞서 한국 석조, 불교 미술 책을 써 오신 진홍섭 교수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당신의 희망이 건강 허락하는 한 한국미술사를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우리가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구운을 맞은 대표 저자 진홍섭 연세대 석좌교수는 우리나라 미술사 학계의 대표적 원로로 손꼽힌다. 이번에 나온 책의 나머지 세 명의 집필자들은 진 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됐다.

진홍섭 교수는 조각·건축을 맡았고, 강경숙 동아대 초빙교수는 공예, 변영섭 고려대 교수는 회화, 그리고 이완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서예를 각각 집필했다. 개괄서는 학계에서 인정한 정론을 바탕으로 정리, 소개하는 책이다. 때문에 각각 분야별로 독자층을 고려한 문체와 내용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했

다. 사계지간인 저자들은 여느 공저자들보다 호흡이 잘 맞아 다섯 분야의 시대별 내용을 정리 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편집과정의 고충은 남달랐다.

“집필 기간만 5~6년이 넘었죠. 자료를 정리하는 것만도 힘든 일인데 다섯 분야가 다 들어가고 집필 방법이 달라 균등한 느낌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도판 수집과 정리였다. 기획, 진행을 전담하던 편집장이 바뀌는 출판사 내부 사정이 겹쳐 편집기간에 2년을 투자해야 했다.

“해방 이후 한국미술사가 나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이 아닌지 싶습니다. 다섯 개 분야의 호흡 맞추는 일이 녹록치 않습니다. 상업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는 거죠. 개설서는 연구 논문 쓰기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1,000여 컷의 도판 자료 담아, 미술서적은 사명감으로 해야

애초 출판사는 흑백 출간을 계획했다. 제작비용뿐 아니라 독자들에게 안겨질 부담이 염려스러웠다. 그러나 필자와 출판사의 노력은 물론이고 미술서 출간으로서도 의미가 많은 책이라는 결론에 걸러 출간으로 결정했다. 결국 이미 수집한 흑백 자료들은 다시 컬러로 변환하는 과정을 추가해야 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연구소 같은 곳에서 모든 데이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 자료들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박물관 자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출판사와 저자가 일일이 도판 자료를 구해야 하니 힘든 작업이죠.”

또 하나 큰 걱정거리는 대표 저자인 진홍섭 교수의 건강문제였다. 진 교수는 90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학문예의 열정으로 꼼꼼한 집필과 감수를 맡아 했다. 지난해 1월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편집을 관장해 온 김소원 대리는 “네 분 필자의 평균 연령이 거의 60세였는데도 편집 막바지에는 매일 모여 작업을 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한국미술사》는 문예출판사와 대표저자 진홍섭 교수 모두에게 의미가 남다른 책이다. 지난 12월 출판 40주년과 출간을 같이 했고, 진 교수의 구순이 되는 해였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미술 연구서를 출판해 온 것을 기념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출판을 시작한 1966년부터 책 표지 디자인 감각을 익히기 위해 인사동을 출입했던 전병석 사장은 “출판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미술 분야가 이제는 애정과 사명감으로 바뀌어 ‘미술사학 연구서 출판’에 이르게 됐다”면서 국내 미술서적 침체를 걱정했다.

“이 책도 다른 미술서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독자들이 많이 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술사는 그 나라의 문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사만큼 중요한 분야



▲ 문예출판사 전병석 사장(우), 편집부 김소원 대리(좌).  
▼ 지난 10년간 출간된 문예 출판사 미술 연구서들.  
▼ 충실한 사진자료와 해설로 한국미술 다섯 개 분야를 담아낸 《한국미술사》

입니다. 하나의 국학서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종류의 책은 출간하면 몇십 년 후에도 후학들에게 자료, 연구서로도 가치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사명감이 필요하고 그 마음으로 출간 했습니다.”

한국 미술 각 분야의 공통된 특징은 산 높고 물 맑은 우리 자연환경에 그 바탕을 둔 ‘고요한 맑음’이다. 중국과 일본으로 유입, 전파되면서 한국적 개성을 살려 발전 해 온 미술사의 전통을 되짚어 보는 것은 분명 세계화 속 한국의 예술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국미술사》는 그 기본을 충실히 하는 책으로 미술 전공자들은 물론 일반 독자에게도 참고서 역할을 담당할 만하다. **이은주**